GWANGJU BIENNALE × ART IN CULTURE

제13회 광주비엔날레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주제 '떠오르는 마을, 맞이하는 영혼 오랜 참여 작가 69명(팀)의 작품을 공개했다.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총 39일 간 열린다. 광주비엔날레와 아트인컬처의 단독 컬래버 기사, 두 번째 주제는 '반체제 연대 의식(anti systemic kinship).' 광주는 한국의 민주화운동, 그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도시다. 이번 비엔날레는 세계 각지에서 정치 폭력, 정체성 억압, 인종 차별에 저항해왔던 역사를 한데 엮는다. 참여 작가 이강승, 이상호, 파시타 아바드의 작품과 작가 노트를 싣는다. 이들의 예술은 소수성 차별과 배제가 더욱 첨예해지는 오늘날 지구촌 사회에서 강렬한 각성의 목소리로 울려퍼진다.

❶ 아시아 정체성, 꿰고 엮다
/ 파시타 아바드
❷ 조상화, 역사를 심판하라!
/ 이상호
❸ 퀴어, 공백과 부재 너머
/ 이강승

파시타 아바드(Pacita Abad) 〈L.A. Liberty〉 천을 꿰맨 캔버스에 아크릴릭, 실, 플라스틱 단추 외 혼합재료 239×147cm(부분) 1992_필리핀 출신인 작가는 미국에 오랜 기간 체류했다.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의 현실에 주목하고 사회 운동에 적극 가담했다. 1946년 바타네스주 출생, 2003년 사망. 코코란미술대학 졸업 후 국제 무대에서 활약. 작가 사후에 설립된 기념 재단의 주도로 수차례 회고전을 치렀다.

퀴어, 공백과 부재 너머

/ 이강승

퀴어 자료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일은 은폐된 퀴어의 역사를 다시 쓰고 이성애 규범의 당위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작업이다. 지난 몇 년간 나는 한국 퀴어 커뮤니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시각예술의 언어로 연결했다. 한국의 미디어는 퀴어의 삶을 철저히 무시하거나 웃음거리로 삼아왔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잘못된 정보에서도 퀴어의 삶과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소위 '비정상적인' 삶의 묘사에서 신체의 공백, 부재, 오해를 넘어선 공동체의 이야기를 만들어 공유하려 한다. 그 흔적은 한국퀴어아카이브의 소장품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번 비엔날레에 출품할 어느 트랜스젠더의 일기장이 그 예다. 가정의 폭력을 포함한 개인사,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쓴 일기와 드로잉 등이 담겼다. 친구사이의 창립 멤버 오준수의 스크랩북은 1990년대 초 한국 게이 커뮤니티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자료다. 그는 1998년 에이즈로 사망할 때까지 한국 성 소수자와 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수호했다. 이번 작품은 한국의 퀴어 역사가 세계사의 일부이며, 저항의 역사와 수많은 삶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한다. 오준수의 삶을 영국의 데릭 저먼(Derek Jarman)의 삶과 병치하고, 미국 최초의 드랙 퀸으로 추정되는 윌리엄 도지 스완(William Dorsey Swann)의 드로잉과 커밍아웃 후 시련을 감내해야 했던 배우 홍석천의 모습을 나란히 바라본다. 한편, 캘리포니아 최초의 오픈리 게이 정치인 하비 밀크(Harvey Milk)는 1978년 살해당했다. 그의 전 애인이 유품으로 하비가 돌보던 선인장을 간직했다. 새로 자라난 작은 선인장, 작은 '하비'들을 친구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나에게도 하비가 있다. 하비를 보살피고 드로잉하는 동안, 역사학자 앤디 캠벨(Andy Campbell)은 내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다. 하비의 당선은 이전에 수많은 퀴어 정치인의 도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봄에 하비를 퀴어 친구들과 나눌 계획이다. 이 작은 하비가 수많은 퀴어의 삶을 연결해주길, 우리의 작은 시도가 조금 더 큰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이강승 〈무제(홍석천)〉 종이에 연필 20×35cm 2020_한국 퀴어의 역사를 가시화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한국과 서양 퀴어의 드로잉을 병치해 이들 삶과 기억의 연결고리를 찾는다. 이강승은 1978년 서울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예술학교를 졸업했다. 올해 갤러리현대에서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 현재 LA와 서울을 오가며 활동 중.